

광복기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연구*

- 남대우·이원수·김원룡의 동시집을 중심으로

한 정 호**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동시집 『종달새』의 작품세계 |
| II. 남대우와 동시집 『우리동무』 | IV. 김원룡과 동시집 『내고향』 |
| 1. 남대우의 문학실천과 지역문단 | 1. 김원룡의 매체편집과 창작활동 |
| 2. 동시집 『우리동무』의 작품세계 | 2. 동시집 『내고향』의 작품세계 |
| III. 이원수와 동시집 『종달새』 | V. 마무리 |
| 1. 이원수의 문단활동과 광복공간 | |

I. 들머리

아동문학은 우리 문학사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아동문학은 오랜 폄하와 홀대 속에서 문학담론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연구 성과 또한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광복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이다. 을유광복(1945. 8. 15)과 더불어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2-AS1009)

** 동국대학교 강사

아동지의 발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라잃은시기 자신의 문학살이를 갈무리하듯 아동 관련 단행본들의 발간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광복기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아동문학은 1차적 자료발굴·수집과 함께 시대별 특성, 개별 아동문학가에 대한 접근이 폭넓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게다가 특정 지역 중심의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찾아들고 따져야 할 자리가 많다. 이 글은 그같은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글쓰이는 광복기에 발간된 아동지를 중심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¹⁾ 지금껏 광복기 아동문학, 특히 동시에 대한 연구는 달리 이루어진 바 없다.²⁾ 하물며 지역 중심의 아동문학 연구는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마찬가지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통과 그 전개양상’이라는 주제로 자료 발굴에 의한 실증적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³⁾

그 과정에서 글쓰이는 광복기 아동지를 중심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과 개별 작가들의 활동상에 대해 살폈다. 특히 나라잃은시기부터 계급

1) 한정호,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한국문학회, 2004. 8) 참조.

2) 이재철(1978)이 광복기를 ‘진통 속의 모색기’로 표현하고 본격 아동문학운동시대라 규정했을 뿐 개별 작가·작품론에까지 연구가 미치지는 못했다. 그리고 신현득(2001)은 광복기를 ‘좌우사상의 대립 시기’로 보고 동시문학의 성격 또한 양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수아동문학 쪽 작가들의 작품을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 김종현(2004)이 「광복기 동시 담론 연구」라는 주제로 광복기 동시의 전반적 특성을 살피고 있다.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 신현득, 『한국 동시사 연구』(단국대 박사논문, 2001) ; 김종현, 『광복기 동시 담론 연구』(대구대 박사논문, 2004) 참조.

3) 이에 관한 글은 『한국문학논총』 제37집(한국문학회, 2004. 8)에 실렸는데, 박태일의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박경수의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정호의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문선영의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집(한국문학회, 2004. 8)을 들 수 있다.

주의 아동문학을 이끌었던 이주홍·엄홍섭·신고송·이구월·박석정 그리고 이원수·남대우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에 신에 김원룡과 최계락 등이 거들었다. 그들은 광복기 아동문단의 앞자리에 서서 작품 활동을 벌임으로써 경남·부산지역 아동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

그들 말고도 다른 갈래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아동문학에 남달리 관심을 보여준 문인들이 있었다. 김상옥·최인옥·김상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광복과 더불어 아동문학이라는 영역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애썼다. 그리고 아동지를 통해 아동문학에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아동문단을 새롭게 이끌어 나갔다. 그렇듯 경남·부산 출신의 문인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광복기에도 아동문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활동을 펼쳐나갔다.

앞선 논의에 이어 글쓰이는 이어지는 과제로 광복기 일간지에 나타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었다. 여러 일간지를 뒤적여 보았지만, 본디 의도와는 달리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가의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까닭에 글쓰이는 그 연구 대상과 그 방향을 바꿔 광복기에 발간된 아동문학 관련 단행본을 챙겨보았다. 광복기에 발간된 아동문학 단행본은 동시집·동화집·소년소설집·동극집 그리고 기타 선집을 비롯하여 수십 종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경남·부산지역 출신 아동문학가의 동시집을 대상으로 삼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시집을 펴내며 광복기 내내 활발하게 활동했던 아동문학가로는 남대우, 이원수, 김원룡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세 사람을 중심으로 광복기 아동문단의 면모, 나아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과 주류적 전개과정에 대한 유의미한 맥락을 따져보고자 한다. 대상에 올린 동시집은 남대우의 『우리동무』 제1집과 제2집, 이원수의 『종달새』, 김원룡의 『내고향』이다.⁴⁾ 이들이 갖는 의미는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끌어갔다는 점, 그 무렵 개인적 창작활동 못지않게 매체 활동을 통한 문학실천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4) 이구월의 동시집 『새봄』(1949)도 광복기에 나왔다. 자료는 끝내 손에 넣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전향의 표식으로 나온 동시집이라는 점에서 빼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있다.

이에 글쓰기가 주로 관심을 가진 자리는 대상 문인들의 광복기 활동상, 그리고 그들이 낸 동시집의 서지사항과 작품세계를 따져보는 일이다. 그 무렵에 나온 동화·소년소설집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⁵⁾ 이 글을 통해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구체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고, 나아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I. 남대우와 동시집 『우리동무』

1. 남대우의 문학실천과 지역문단

남대우(1913-1950)는 1913년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서 태어나, 1927년 하동공립보통학교를 거쳐 하동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했다. 1931년 아동문학에 뜻을 두었으며 『동아일보』 하동지국을 운영했다. 1933년 『매일신보』에 동시 「까가」를 발표하고, 1934년 『동아일보』 신춘현상문예에 동화 「쥐와 고양이」가 당선되면서 일간지와 잡지에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1940년 8월 『동아일보』 강제 폐간으로 1942년부터 광복 때까지 하동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광복과 함께 그는 하동문화협회를 이끌었고, 1945년 11월 『우리동무』 제1집과 이듬해 8월에는 『우리동무』 제2집을 펴냈다. 또한 그는 『동아일보』 복간으로 다시 하동지국을 운영했다. 1947년 『예술신문사』 하동지국장을 지냈으며, 아동지 『새동무』의 하동지사장을 맡았다. 1949년 10월 하동문화협회 일을 접고 부산으로 옮겨 『매일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언론인으로 삶을 바꿔었다. 그러나 1950년 경인전쟁 직전 국민보도연맹 학살폭거로 말미암아 희생되고 말았다.

이렇듯 남대우는 나라잃은시기부터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광복기의 행적이 돋보인다. 그의 광복기 문단활동에 대해서는 1946년 2월에 조선

5) 이를테면 이주홍의 『못난 돼지』와 이원수의 『어린나라』·『봄잔치』·『숲속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학가동맹의 ‘하동문화협회’를 창립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 어떤 단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무렵 발간된 여러 아동지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어린이신문』의 ‘김순남 작곡집’란에 동요 「이십리 고개」의 악보와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실었고, 『새동무』와 『소년』에 각각 2편의 동시를 발표했다.⁶⁾

한편 그의 광복기 행적으로는 하동지역에 줄곧 터잡고 살면서 지역문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을 쏟았다는 점이다. 이에 못지않게 그는 두 권의 동시집 『우리동무』 제1집과 『우리동무』 제2집을 냈다. 그리고 그는 『동아일보』 하동지국, 『예술신문』 하동지국장, 하동문화협회를 운영, 『새동무』(김원룡 발행)의 하동지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처럼 남대우는 여느 문인들과 달리 중앙문단의 풍토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자신의 고향인 하동지역에 터잡고 살면서 지역의 아동문학운동에 큰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했듯이, 광복 직후 남대우는 ‘우리동무’란 표제로 두 권의 동시집을 펴냈다. 『우리동무』 제1집(자가본, 1945. 10. 18)과 『우리동무』 제2집(하동문화협회, 1946. 8. 15)이 그것이다. 먼저, 『우리동무』 제1집은 광복을 맞은 지 2개월 만에 서둘러 펴낸 동시집이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죄사슬에 얽매어 가진 괴로움을 받아오든 조선이 지난
八月十五日에 해방이 된 이후 이 보잘 것 없는 동요를 지어 한 기념으로 삼
는 바이외다. (十月十八日 남대우)

왜로군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거래의 감격 못지않게 개인적인 감격도 컸을 터이다. 여러 문인들이 광복문단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문학을 목청 높여 구가하고 있을 때, 남대우는 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광복의 감격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보잘 것 없는 동요를 지어” 광복의 “한 기념으로 삼는”다고 적고 있다.

이 동시집은 남대우 자신이 직접 꾸며 프린트판으로 냈다. 판권이 따로 없어

6) 또한 그는 정태병이 엮은 『조선동요전집』(신성문화사, 1946)에 「산울림」·「박」·「은구슬 금구슬」을 실고 있다.

정확한 발행연도와 발행처 그리고 발행부수는 알 수 없으나, <머리말>을 쓴 때로 미루어, 1945년 10월 18일에 펴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별님동무>(9편)와 <우리동무>(10편)라는 두 묶음으로 나누어 모두 19편의 동요를 실었고, 작품 끝에 지은 날짜를 밝혀 두었는데, 대개 1945년 9월과 10월 무렵에 지은 것들이다. 판형은 15.5×25cm이고, 전체 분량은 31쪽에 달한다.

앞표지는 제자와 문양으로 꾸며져 있는데, 자신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시집 끝에 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래쪽에 ‘송릉(松陵)’이라고 적혀 있다. 풀이하면 ‘소나무 언덕’이 되겠는데, 그린 사람의 이름(호)인지, 그림의 제목 또는 지명인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우리동무』 제2집은 광복 1주년에 맞춰 낸 동시집이다. 그런 까닭에 표제 위에 ‘해방기념동요집’이라고 적어 두었다. 아울러 그는 <머릿말>에 ‘이 보잘 것 없는 노래를 엮어 해방기념 제1 동요집으로 내어놓는 바외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제1집 이후, 곧 1945년 11월부터 1946년 8월 사이에 지은 것들로 모두 50편을 실었다. <우리동무 I>(25편)과 <우리동무 II>(25편)로 나누었고, 끝에 자신의 동시 「보슬비」(최덕해 작곡)의 악보를 함께 실었다. 판형은 12.5×18cm이고, 앞서 낸 제1집과는 달리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춰 발간되었으며, 70쪽 분량이다.

표지에는 할아버지와 아동들이 나무를 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림을 넣었고, 작품 사이 사이에 삽화를 그려 넣었다. 제자와 표지화 그리고 삽화는 이주홍의 것으로 보인다. 판권에 따르면, 1945년 8월 10일 인쇄에 들어가 8월 15일 발행된 것으로 적혀 있다. 저자 남대우, 주소는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462번지임을 알 수 있다. 발행소는 ‘하동문화협회’(대표 박노성)이며, 인쇄소는 하동○○인쇄소이며, 인쇄자는 김판갑(金判甲)임을 밝혀두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두 권의 동시집 모두에서 <차례> 뒤에 다음과 같이 ‘덧말’을 적었다.

文慈야 基旭아 基烘아 씹씹하게 자라며 잘보아라. (제1집)

慈야 旭아烘아. 이 노래 책 가지고 싸움 말고 잘 놀아라. (제2집)

이같은 덧말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식이라고 하겠지만, 넓게 보

아 광복을 맞이한 모든 아동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복기 모든 아동들을 향한 그의 관심과 사랑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의 동시집 발간의 동기는 광복을 맞은 조선 아동의 감정과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동시집 『우리동무』의 작품세계

1) 순수 동심과 자연현상을 노래한 서정동시

광복기 남대우의 동시들은 대개 아동의 순수 동심을 담아내고 있다. 여러 동시들이 그렇듯이 아동들의 구체 현실과 감정을 제재로 삼아 순진무구한 세계를 담아낸 것들이 그리 흔하지 않다. 이는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작가의 기억이나 겉스치는 관찰만으로 작품을 쓰는 까닭에 있다. 하지만 남대우의 동시는 아동의 삶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온 동심의 소산이라 하겠다.

① 지리산 상상봉에 / 단풍 꽃이 아름답구나. / 나무스군 동무야 모두 오너라 / 울긋불긋 고운 단풍 구경 가세. // 지리산 상상봉에 / 단풍 꽃이 수를 놓았네. / 나무스군 동무야 모두 모여라 / 노래노래 부르며 단풍놀이 가세.

- 「단풍놀이」 전문

② 울 넘어 매화 나무 꽃스있이 행기롭고 / 노랑 나비 희나비 너울너울 춤 출제 / 금실 은실 햇스별살 / 슬기롭운 바람 곁 // 꼬 꼬 암탉은 둥주리에서 / 눈을 반만 감았다 떴다 / 새끼 안을 꿈을 꾸다 / 아롱진 꿈을 꾸다.

- 「봄날」 전문

①은 구체 장소인 “지리산 상상봉”을 작품 속에 끌어오고 있다. 그곳의 볼거리인 “단풍놀이”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나무스군 동무”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고 있다. 여느 동시에서는 쉬 찾아보기 힘든 동시세계이다. ② 또한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봄날” 매화는 지리산(하동)의 자랑이라 하겠다. 이를 동시로 표현하고자 한 작가 의도가 돋보인다. 결국 이들 작품은 작가 자신이 터잡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③ 땡 땡 / 땡 땡 // 남새 밭을 / 돌아라.

- 「땡 땡」 전문

④ 기스대 들고 / 궁가 뿌리고 // 동네 사람 오니라 / 얼른 오니라

- 「기스대」 전문

남대우의 독특한 창작기법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아들딸, 곧 문자·기옥·기홍의 노래를 그대로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⁷⁾ 그의 동시들은 아동 언어를 그대로 끌어옴으로써 순수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③은 작품 끝에 ‘九.一三 오후 일곱시 지나 바람비가 마루를 스치는데 문자(여섯살)가 저녁을 먹으며 부른 노래’라고 적혀 있다. 여느 문인들과 달리 시적 발상의 근원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재미를 앞세운 기발한 착상이라기보다 아동들이 지니는 순수 동심을 그대로 작품화한 것이다.

따라서 남대우의 동시는 공연히 시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기교보다는 아동의 말을 잘 살려냈다. 어조는 단순히 어린이 흉내내기가 아니면서도 아동의 삶에 녹아들어가 저절로 어린이의 목소리로 바뀌어 있다. 이처럼 그의 동시에 나타나는 유아적 언어는 리듬감을 살리고 경쾌함을 더해주며 아동의 맑고 구김살 없는 동심을 담아내는 효과를 지닌다. 게다가 그는 ‘작은 병아리’를 나타내는 ‘땡 땡’이라든지 “궁가 뿌리고”와 “얼른 오니라” 같은 경상도 지역어를 잘 살려내고 있다.

2) 광복의 감격과 교훈·계몽적 서정

남대우의 동시들 대부분은 광복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 세계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 가족들의 생활과 구체 현실에 대한 감각의 틀 안에서 즐겨 취재되는 것이 그의 작품의 한 특징이다. 반면 그의 동시는 앞서

7)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날아 날아 좋아라」(문자의 노래), 「대야 대야」(문자의 노래), 「신선바구」(문자의 노래), 「꿀꿀이」(문자의 노래), 「땡땡·갈」(문자의 노래), 「놀랐고야」(문자의 노래), 「방아」(기옥의 노래), 「깃대」(기홍의 노래) 들이다.

다른 순수 동심의 표현과 함께 광복의 감격 그리고 어린이를 향한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서정을 보여주고 있다.

① 동무동무 우리동무 / 병글병글 햇님동무 / 햇님을 본받아 / 씹씹하게 자라자. // 동무동무 우리동무 / 둥글둥글 달님동무 / 달님을 본받아 / 고운 맘 기루자.

- 「우리동무」 전문

② 동무동무 우리동무 / 올망졸망 우리동무 / 눈 바람을 맞으며 / 굳센 마음 기른다. // 동무동무 우리동무 / 오돌뫼뫼 우리동무 / 보리밭을 밟으며 / 파란 꿈을 그린다.

- 「우리동무 1」 전문

①은 광복을 맞은 아동들에 대한 시인의 기대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말할이는 아동들을 “햇님동무”와 “달님동무”에 비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씹씹하게 자라”고 “고운 맘”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이다. 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아동들에게 “굳센 마음” 기르고 “파란 꿈”을 그리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대 심리는 동시 창작의 또 다른 열정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들의 순수 동심과 체험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교훈적·계몽적 동시를 낳게 했다고 하겠다.

③ 삼천리 강산에 / 태극기 휘날리고 / 우리들의 만세소리 / 원세상에 울린다. // 무궁화 동산에 / 북소리 둥—둥— / 우리들의 노래소리 / 원세상에 울린다.

- 「태극기」 전문

④ 달그락 달그락 깨다 소리 / 듣기도 싫다 끝지를 말아. // 발스가락 째어진 왜놈의 신발 / 본 받아 신어서야 될말이나. // 집세기 제날에 제멋이난다 / 농사사군 아들은 집세기가 제일이지.

- 「집세기가 제일이지」 전문

⑤ 왜놈의 앞잡이로 개 노릇 하며 / 정용으로 보국대로 몰아 쫓든 놈 / 제 아무리 애국자라 떠벌어대로 / 생각하면 이 같린다 속혈줄 아니. // 왜놈 세상 좋아라 꺼떡거리며 / 우리들의 피 땀을 빨아 먹든 놈 / 새 조선을 세우는데 덤비는 꼴이 / 기가 차서 못 보겠다 정말 우습네. // 너이들이 암만

발악을 쳐도 / 미친 개 처럼 날 뛰어도 / 넘어 갈줄 아느냐 이기고 말걸 /
우리들은 우리들의 갈스길이 있다.

- 「왜놈 앞잡이」 전문

남대우는 광복의 기쁨은 물론 나아가 왜로 잔재를 청산하고 새나라 세우기에 대한 기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③은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는 광복의 감격을 “태극기 휘날리며” 겨레의 “만세소리”와 “노래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고 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광복의 의미를 한층 끌어올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는 “계다”와 “집세기”를 서로 대비시켜 노래함으로써 왜로의 잔재 청산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집세기 제날에 제멋”이 난다는 표현은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다. 그리고 ⑤는 광복기 부왜인의 준동과 탈바꿈을 조롱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라잃은시기 우리 겨레를 “징용으로 보국대로 몰아 쫓”고 “왜놈 세상 좋”다고 설치던 부왜인들이 광복기에는 “새 조선을 세우는데 덤비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나라잃은시기 “왜놈 앞잡이”로 행세하던 이가 광복을 맞아 “애국자”로 둔갑하려는 꼴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3) 아동의 삶과 일상을 노래한 생활동시

남대우의 초기 동시세계를 이오덕(1994)은 ‘농촌 어린이들의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았고, 김수복(1997)은 ‘곤궁한 농촌 삶의 인식과 동심세계’라 하여 양면성이 있다고 파악했다.⁸⁾ 그는 광복기 아동들이 가난한 현실의 고통에 주저앉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그의 동시 세계는 아동의 구체 현실과 일상적 삶을 노래한 생활동시가 많다. 이 또한 아동을 향한 지극한 애정으로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8) 이오덕, 「어린이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노래들」, 『오늘의 문예비평』 1994년 봄호, 158쪽 ; 김수복, 「곤궁한 삶의 인식과 새 시대의 감격」,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 작품론』(집문당, 1997), 86쪽 참조.

① 우리는 새쫓는 어린동무들 / 누른벼 물결치는 논뚝에앉아 / 석유통 정 소리를 높이울리고 / 양철을 내흔들며 후이후이. // 여름내 피땀흘려 지어 놓은벼 / 놓고서 먹는논엔 한알않준다 / 멀리멀리 가거라 가까이도 오지마 라 / 소리소리 지르며 후이후이.

- 「새 쫓는 노래」 전문

② 오늘도 산마루에 외로이 서서 / 재 넘어 산스길만 바라 봅니다. / 그 리운 아버지는 행여 오시나 / 두눈이 마롱마롱 해가 집니다. // 눈물로써 보 내온 이 자리에서 / 웃음으로 맞이하기 빌고 빕니다. / 징용가신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 은은히 들려 오는 절간 종소리.

- 「징용가신 아버지」 전문

③ 보리 고개는 한숨의 고개 / 허리 끈을 졸라매고 넘는 고개 / 돌아다 보며는 꿈속의 일 / 눈물이 방울방울 아롱지지요. // 할아버진 이 고개서 돌아가시구 / 할머니 주름살이 늘어만 가는 / 설어운 이 고개 원수의 고개 / 우리들의 힘으로써 무너트리자.

- 「보리고개」 전문

일하는 아동의 모습 또한 우리 삶의 일부이고 주요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남대우의 동시가 순진무구한 아동의 세계이면서 생활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매우 값진 성과이다. ①은 가을걷이를 앞둔 농촌 아동의 일상, 곧 “새 쫓는 어린 동무들”의 체험을 그려내고 있다. 물론 이는 창작 초기부터 보여주었던 가난한 농촌 현실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 몸담고 있는 그의 세계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②에는 광복이 되고 “징용가신 아버지”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동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산마루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아버지는 “소식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동시는 광복기 가족의 생활상, 특히 이는 아버지 부재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현실의 고발과 외세를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현실, 그리고 징용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③은 가난한 거래의 삶을 “보리고개”라는 글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래의 가난과 설움을 “한숨의 고개” 또는 “원수의 고개”로 노래하고 있다. 비록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가난에 대한 창작은 현실주의 작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 무렵 대개의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

인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작품은 광복기의 구체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세계관과 시정신을 나름대로 견지하고 있다.⁹⁾

4) 단체 홍보와 관련된 작품

광복기 남대우는 하동문화협회를 이끌며, 신문사 지국과 하동서관을 운영했다. 그리고 하동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지역사회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주요한 몫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까닭에 그는 지역 안쪽의 여러 단체들에 대한 홍보를 작품 속에 들내고 있다. 농민조합·하동학원·소년부회 같은 지역 단체가 그것이다.

① 장엄한 지리산을 우렐어 보며 / 새 나라 새 일꾼을 길러내는 / 배움의 전당인 하동의 학원 / 우리 동무 二千 동무 별님의 동무 / 비 바람이 몰아 쳐도 모두 모여서 / 정다웁게 자라는 보금 자리요. // 푸르른 섬진강을 굽어 보며 / 새 조선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 배움의 요람인 하동의 학원 / 우리 동무 二千 동무 별님의 동무 / 나비 처럼 자유로이 춤을 추며 / 즐거웁게 뛰어 노는 꽃동산이요.

- 「하동의 학원」 전문

② 농민조합 깃발을 앞세우고 / 아저씨들은 씩—씩— 나아간다. / 징소리 궁—궁—. / 북소리 둥—둥—. // 노래노래 부르며 때를지어 / 아저씨들은 씩—씩— 나아간다. / 징소리 궁—궁—. / 북소리 둥—둥—.

- 「징소리 궁궁」 전문

광복기는 아동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우리말과 글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이를 아동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열기가 높았던 때이다. ①에서는 단순히 아동 교육을 권장하는 차원이 아닌 특정 교육 단체를 선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동의 학원’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새조선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배움의 요람”, 곧 일반 초등학교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¹⁰⁾

9) 한편, 남대우는 어린 자녀들의 잦은 병치레를 걱정 탓인지, 아동들이 앓는 질병과 그 치료에 대한 동시를 여럿 적고 있다. 「기침」, 「홍진」, 「조릿대」, 「숨소리」, 「약」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

10) 남대우는 1942부터 1945년까지 하동공립학교(현재 하동초등학교) 교사로 일했

②는 광복 직후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광복 직후 우리 사회에는 전국에 150여 개의 자치조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농민조합”은 그 가운데 하나일 터이다. 그런 점에서 “노래노래 부르며 떼를 지어” 나아가는 “아저씨”들의 모습은 그 무렵 아동들에겐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처럼 그 무렵 농민들은 마을마다 농민조합을 만들어 징소리, 북소리 울리면 농민들의 힘을 모아 나갔다. 아동들도 그 뒤를 쫓아다니며 노래 부르며 놀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동시에는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거래의 모습이 담겨 있다.

Ⅲ. 이원수와 동시집 『종달새』

1. 이원수의 문단활동과 광복공간

이원수(1911-1981)는 1911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자랐고, 1922년부터 마산에 이주하여 마산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마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24년 4월 『신소년』에 「봄이 오면」을 발표하고, 1926년 4월 『어린이』에 「고향의 봄」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그 뒤 아동문학동인회 <기쁨사> 동인을 거쳐 『어린이』지의 집필동인으로 활동했다. 1931년 신고송·소용수·이정구·전봉제·박을수·김영수·윤석중 등과 함께 ‘신흥아동예술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했다.¹¹⁾ 1935년 ‘함안금융조합’에서 일했고, ‘독서회’ 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옥고를 겪었다.

그는 나라잃은시기 주로 마산지역에서 활동했지만, 광복을 맞아 서울로 터전을 옮겼다. 광복기에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에 들었던 문인이었지만, 중도좌파

던 것으로 미루어, ‘하동의 학원’은 아마도 하동초등학교를 가리킨 것으로 짐작된다.

- 11) 『조선일보』 1931년 9월 17일자에 게재된 ‘신흥아동예술연구회’의 창립에 관한 기사를 바탕에 둔 것이다. 이원수의 동시를 마산의 소년운동과 관련하여 살핀 원종찬의 글과 달리 그의 아동문학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원종찬, 「이원수와 마산의 소년운동」,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2), 325-337쪽 참조.

문인들과 적극 교류했으며, 매체 또한 좌파 쪽 『새동무』·『아동문학』이나 우파 쪽 『소학생』 등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그는 광복기에 이르러 좌·우파 문단의 두 진영을 넘나들며 매우 두드러진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1945년 12월에 창간한 좌파 아동지인 『새동무』의 편집자문을 맡았고, 1947년에는 서울 경기공업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박문출판사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나라 정세가 다르게 바뀌자, 그는 1949년 4월 30일 전국아동문학작가협회 결성대회 때 회원으로 참가했다. 그 뒤 1949년 12월 전국문학가협회 문학부와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중심으로 일반 무소속 작가와 전향문학인을 포함한 한국문학가협회(위원장 박종화) 결성 때 추진회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원수는 광복기 아동지 『소학생』, 『아동문학』, 『새동무』, 『어린이나라』, 『소년』, 『어린이』, 『진달래』, 『아동문화』에 동요·동화·소년시·소년소설·평론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였다.¹²⁾ 또 한 그는 여러 아동지에서 심사와 지도를 맡았다.¹³⁾

흔히 이원수는 광복 이후 가장 활동적인 아동문학가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¹⁴⁾ 그런 만큼 그는 광복기에도 아동문학 영역에서 활동을 증폭·비약시켰으며 문학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어쩌면 이는 나라잃은시기 부왜문학 행위에 대한 반성과 만회를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여겨진다.¹⁵⁾

12) 이원수는 광복기 모두 다섯 편의 동화와 소년소설을 발표했다. 「새로운 길」·「눈뜨는 시절」(1948), 장편동화 「숲속나라」(1949), 「바닷가 아이들」(1949), 장편 소년소설 「어린 별들」(1950)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소년소설 「어린 별들」은 『아동구락부』 1950년 2월호부터 5·6월 합본호에 연재되었다가 중단된 작품이다. 뒷날 이는 『5월의 노래』(신구문화사, 1953)로 발간되었다.

13) 이원수는 『주간소학생』과 『소학생』에서 해마다 마련하고자 했던 ‘아협상타기 적문 동요’ 현상응모에서 이회승, 정지용, 윤석중과 함께 줄곧 심사위원을 맡았고, 『소년』과 『진달래』에 실리는 어린이 작품들을 지도했으며, 『어린이』의 ‘우리 차치’에 실리는 작품들을 선별하고 작품평을 맡았다. 그리고 『어린이나라』에서 한 차례 벌였던 ‘어린이나라의 노래’ 현상모집에서도 정지용·이병기·양주동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14) 이원수 동시 연구로는 김용순(1987), 공재동(1987), 김성규, 김중현(2002)의 글이 있다.

15) 이원수의 부왜문학에 대해서는 박태일의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청동거울, 2004)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원수는 자신의 방대한 작품집 가운데 세 권의 동시집을 냈다. 광복기에 펴낸 『종달새』(1947)를 비롯하여 『빨간 열매』(1964), 『너를 부른다』(1979)가 그것이다.¹⁶⁾ 여기서 다룬 동시집 『종달새』는 3부로 실렸는데,¹⁷⁾ 모두 33편의 작품 가운데 27편이 나라잃은시기 발표했던 것을 가려뽑은 것이다. 따라서 광복기 작품 활동과는 많은 시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광복기에 쓴 작품은 6편이다. 판형은 12.5×18cm이고, 분량은 모두 63쪽이다.

확정한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앞에 실렸을 ‘지은이의 말’과 차례, 그리고 작품 몇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품 선정에 있어 출판사인 ‘새동무사’의 성격에 맞는 작품들을 선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당시 우리 겨레 현실이나 아동들의 생활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 그것이다.¹⁸⁾

그 무렵 이원수는 서울 경기공업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새동무사의 편집자문을 맡고 있었다. 이 동시집의 <꼬리말>은 동향의 아동문학가이면서 『새동무』사의 발행인이었던 김원룡이 적었다. 이로써 이원수와 김원룡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童謠 童詩集 “종달새”를 出版코자 著者로부터 原稿를 얻은지 數月이 지났으나 날로 어려워지는 出版事情으로 豫定한 時期에 내지못 하고 이제야 刊行케되었다.

著者 李元壽氏는 朝鮮童謠界의 빛나는 存在로 20餘年の 童謠生活에서 얻

16) 여기서 『빨간 열매』는 79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8편의 동시가 앞선 『종달새』에 실렸던 작품이다. 그리고 전집의 이름이 붙어 나온 『너를 부른다』에는 『빨간 열매』에 실렸던 작품(77편)과 그 이후의 작품들을 모은 119편이 수록되었다. 그 뒤 엮어진 『이원수아동문학전집 1 -고향의 봄』(1984)에는 296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오덕, 『자랑스런우리의 고전이 된 수많은 명편들』, 『이원수아동문학전집 1 -고향의 봄』, 웅진출판, 1984, 412쪽 참조.

17) 글쓴이가 찾은 동시집 『종달새』는 파본인 까닭에 목차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글쓴이 생각으로는 제1부 <종달새>, 제2부 <??>, 제3부 <달밤>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새동무』 제9호에 『종달새』 광고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20년 동안 깨끗한 마음으로 가난한 조선 어린이의 마음을 노래 하여온 李元壽 先生의 寶玉 같이 빛나는 童謠와 童詩集 <종달새>는 새 조선의 少年 少女의 아름다운 마음의 양식이요 다시 없는 좋은 선물입니다.”라고 밝혔다. - 『새동무』 제9호(새동무사, 1947. 7. 1), 21쪽.

은 노래들은 읽는사람들의 心琴을 울리고도 남는지라 兒童文學 特히 朝鮮兒童界를위하여 하루바빠 出版해야 할것을 切實히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精誠들여 만든 이 책이 종이의 印刷가 如意치 못하여 미안한同時 讀者 여러분에게도 저우히 부끄러웁다. 오직 寶玉같이 빛나는 이 詩集이 새 조선의 어린 少年小女들의아름다운 마음의 양식일것을 믿고 기뻐한다.

(1947年 5月 10日 새동무社 發行人 金 元 龍)

이 동시집은 판권을 따로 두지 않았다. 김원룡의 <꼬리말>에 미루어 1947년 5월 10일 무렵에 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끝에 표기된 창작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원고는 1946년 11월 즈음에 출판사에 넘겨졌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표지 장정은 평소 교본이 남달랐던 이주홍이 맡았다. ‘홍’이라 적힌 것으로 미루어 쉽게 알 수 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꽃을 꺾어 들고 길을 걸어가는 그림이다.

2. 동시집 『종달새』의 작품세계

1) 순수 동심과 자연현상을 노래한 서정동시

동심주의는 아동들의 순진무구한 심정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드러내는 문학정신을 말한다. 이재철(1996)에 따르면, 아동문학에서 동심주의는 리얼리즘의 반대, 곧 주관주의로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적인 아동관에서는 아동의 미발달된 심성이 낳은 상상력의 비정상상을 그대로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성을 긍정적인 면에서 존중하며, 아동을 객관세계의 인식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¹⁹⁾

이원수의 동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여느 동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순수 동심을 담아내고 있다. 아아동 심리와 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소산이라 하겠다.

① 종달새, 종달새 / 너 어디서 우느냐. / 보오얀 봄 하늘에 / 봐도 봐도
없건만 / —비일 비일 종중중 / 비일 비일 종중중…… // 종달새, 종달새 /
네 동무도 많구나. / 누나 따라 십리길 / 가도 가도 네소리 / —비일 비일

19) 이재철, 『세계 아동문학 사전』(계몽사, 1996), 75쪽 참조.

종종종 / 비일 비일 종종종…… // 종달새, 종달새 / 밭에도 내려오너라. /
파란 보리 자라서 / 숨박꼭질 좋겠다. / —비일 비일 종종종 / 비일 비일 종
종종……

- 「종달새」 전문

①은 동시집의 표제로 삼은 작품이다.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울고 있는 “종달새”의 울음소리에 대한 순수 동심을 표현이라 하겠다. 어느 봄날 “누나 따라 십리길”을 가는데 종달새의 울음만 들리던 정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파란 보리밭에 내려와 서로 어울려 “숨박꼭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아동의 호기심이 함께 스며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종달새 울음을 흉내낸 의성어 “비일 비일 종종종”을 되풀이 씌으로써 리듬감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다.

② 아, 아, 입벌리고 / 눈송이 받아 먹자 / 아이 차거 / 아이 차거 / 옷속
엘 끌어 가네 / 소매속엘 들어가네. // 눈 눈 오는 밤은 / 좋아 뛰고 싶는데
/ 아버지 어머니는 / 주무신다. // 원종일 일하시고 / 고단 하신지 / 눈도 눈
도 안보시고 / 주무신다.

- 「밤눈」 가운데서

③ 양말 사러 가는길 / 밭에는 가마귀, 떼 가마귀 / 푸루루 날았다. / 하
늘이 까맣게 / “옛 추어 옛 추어” / 울고 간다. // 가마귀 돌아 / 너희들도
어서 / 버선 신어라.

- 「양말 사러 가는 길」 가운데서

②와 ③ 또한 어린다운 발상에 선명한 이미지를 실어낸 것이다. 그는 추운 겨울날에 대한 기억, 곧 “눈오는 밤”에 “좋아 뛰고 싶은” 마음과 “양말 사러 가는 길”에서의 풍경을 떠올리며 시적 정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하고 힘겨운 현실을 담아내려는 의지가 숨어 있다. 그같은 생활을 광복기의 가난한 현실인 맨발의 “까마귀”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춥다고 울고 있는 까마귀들에게 “어서 버선 신어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 현상을 통한 순수 동심을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시에는 아동의 생활 체험이나 감정이 깊이 스며 있다.

2) 아동의 삶과 일상을 노래한 생활동시

‘생활동시’란 아동들의 삶이나 생활을 통해 조명되는 동심의 시이며, 아동들의 실제 생활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동시를 일컫는다. 그런 까닭에 아동의 일상 체험에서 만나는 소재가 주로 채택된다.

① 어머니를 졸라서 올에 첨으로 / 장난감 꽃불을 사러 갔더니 / 가갯집 안방에서 글 읽는 소리. // 우리 반의 그애다, 국어 독본을 / 아!내일 뽕갯까지 죽죽 읽구나. // 사려던 꽃불도 다 그만 두고 / 나는 곧 달음박질, 우리 집으로. // 강건너 산위에는 별들이 나와 / 꽃불처럼 이롱 이롱 피고 있었다.

- 「꽃불」 전문

② 저녁이면 성둑에 애기엿고 나와서 / “보오야 넌 네요” / “보오야 넌 네요” // 아기는 일본아기 청얼 청얼 우냔이 / 해질녘엔 여기 와서 / “보오야 넌 네요” // “귀남아 / 귀남아 / 너이 집은 어디냐 / 저산 넘어 마을이나 / 엄마 아빠 다 있니?” // 나무 나무 늘어선 서산 머리는 / 새빨간 새빨간 저녁놀빛 / 귀남아 네눈에도 저녁놀빛.

- 「보오야 넌 네요」 전문

①은 이원수 자신이 어릴 적에 겪었을 법한 유년 체험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원수 스스로 『동시 작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이들의 생활을 소재로 삼고자 한 것은 ‘첫째 실감이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일이요, 둘째 우리의 생활로 시를 씀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을 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좋은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²⁰⁾ 1942년에 쓴 것으로 적혀 있는 이

20) “이 꽃불을 사 가지고 놀아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그 꽃불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루는 돈이 생겼다. 저녁을 먹고 난 내가 공부도 다 집어치우고 꽃불 파는 가게로 달려갔다. / 가게 문을 들어서서 꽃불을 사려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꽃불 주세요.’하고 말을 하려니까 가갯방 안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반에 있는 동무 아이의 소리다. / 내일 배울 국어책을 아주 죽죽 내려 읽고 있다. 그 때, 나는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꽃불에만 정신이 팔려서 공책이나 연필을 살 생각은 않고 그 장난감을 사러 온 내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그래 주인을 부르 려던 것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 돌아오다 보니 강건너 산 머리에 별들이 이롱이롱 빛나고 있는 것이 마치 꽃불과도 같아 보여서 그걸 바라보며, 어서 집에 가서 나도 국어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그 날 일을 동시로 쓰고 싶어졌다. 그래 쓴 것이 이런

작품의 경우, 나라잃은시기 우리 겨레의 비극적인 면모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왜로군국주의의 막바지 상황에서 “국어책”은 일본의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부왜 동시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②는 1938년 10월 『소년』지에 게재된 작품이다. 여기서 시인은 일본 아이를 보는 “귀남”이의 생활을 통해 나라잃은 비애와 연민으로 가득찬 결핍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귀남”이란 아이로 표상되는 고난받는 아동 현실에 “새빨간 저녁 놀빛”과 귀남의 눈에 맺힌 울음 섞인 “저녁 놀빛”을 연결함으로써 시적 정감을 비극의 정점으로 성급 끌어올리고 있다. 이같은 상상력야말로 이원수 동시의 본령이라 할 만하다.

3) 가난과 가족적 삶을 노래한 현실주의 경향

흔히 이원수 동시의 특징은 서민성과 현실주의 동심을 올바르게 구현했다고 평가된다.²¹⁾ 이 동시집의 발행처인 ‘새동무사’가 현실주의 경향을 보여준 출판사였던 점으로 미루어, 여기에 실린 대개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현실주의 동시들을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그런 까닭에 광복기의 구체 현실과 가족의 가난한 삶을 노래한 것이 많다.

① 버들 피리 불자, 보리 밭에서 / 동무 동무 나라니 서서 불자. // 작년 봄 이맘때는 양식 뺏기고 / 동네 마다 배고파 말 아니었지. // 버들피리 불자, 뒷산에 자는 / 지난봄에 죽은 애들 무덤에 불자. // 우리 동네 안에서도 어린 애가 셋 / 콩보리밥 나물죽에 병나죽었다. // 버들피리 불자, 보리 밭에서 / 다 같이 잘 사는봄 오라고 불자.

- 「버들피리」 전문

② 어머니는 셋집살이 서러 하시고 / 언니는 집임자 미워 씹 하시고 / 나는 구루마에 이삿짐만 실었다 / 우리도 좋은집 살때 있겠지. // 고리짝 껌짝 이불 보통이 / 내 책상 우리 살림 모두 싣고서 / 내일 낮도 좋으려면 밤중

시다.” -이원수, 「동시 작법」,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9』(웅진출판, 1984), 57-58쪽.

21)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창작과비평사, 1977)

22) 여기에는 「버들피리」, 「첫눈」, 「이삿길」, 「군밤」, 「설날」, 「잘 가거라」, 「헌모자」, 「정월대보름」, 「가시는 누나」, 「눈오는 밤에」, 「기차」, 「저녁」, 「가을밤」, 「병원에서」가 든다.

에 간다. // 며칠만 기다려라 사정 했건만 / 집주인 고집통이 듣지를 앓아 /
“우리도 언제나” 하며 / 주먹을 쥐어보고 또 쥐어 보고 / 붙야 붙야 싼고
가는 우리 이삿짐.

- 「이삿길」 가운데서

①은 광복 이후 나라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 그래서 희망의 새봄에 신나게 부는 “버들피리”가 아니라 지난 봄에 “양식 뺏기고” “콩보리밥 나물죽에 병나 죽은” 아이의 비극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슬픈 버들피리이다. 따라서 작품 속의 아동은 가난한 시대 현실에서도 오히려 “잘 사는 봄”이 왔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②는 “셋집살이” 가족이 쫓겨나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을 노래하고 있다. 광복은 되었지만 우리 겨레의 삶은 별반 변한 것 없이 가난의 연속이었다. “우리도 언제나” 하며 “좋은 집”에서 살 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 보지만, “집주인”에 대한 분노가 앞설 뿐이다. 이로써 겨레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의 작품세계는 가난과 궁핍한 삶의 모습과 정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간난아 어서 와서 떡국 먹어라 / 한해 한번 제일 좋은 설날이다. //
없는 설빔 졸른다고 나을줄 아니 / 새해 부텨 우리도 잘 살아야지. // 눈위에
해가뜨니 은세상이다 / 간난아 언덕으로 올라 오너라. // 하얀산 멀리 넘어
돈버리 가신 / 아버지 불으면서 세배 드리자.

- 「설날」 전문

④ 복순아 / 너이엄마 우리엄마 / 모두 공장에서 밤이 되도 안 나오고 /
일쌔 올려 달라고 버티고 계신단다. // 눈은 펄펄, 밤은 깜깜, / 우리 엄마들
이겨라 / 공장 아저씨들 이겨라. // 복순아 가자, 우리집에, / 오빠랑 공장에
가보고 와서 / 저녁맘마 지어 뵈다 / 노랑 노랑 좁쌀 갖고 / 저녁 맘마 지
어 뵈다. // 우리, 같이 가서 저녁먹고 / 함께 엄마들 기다리자 / 너이 엄마
도 우리 엄마도 / 오늘은 꼭 이기고 오실 꺼다.

- 「눈 오는 밤에」 가운데서

이원수의 동시관은 가난하고 불행한 현실을 아동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주의 동시관과 맞닿아 있다. 이를테면 그는 아동 스스로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흔히 가난이라는 상황

은 명절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마련된 까닭에, 이를 배경으로 한 동시들은 가난한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③도 마찬가지다. “한해 한번 제일 좋은 설날”이지만, 멀리 “돈벌이 가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세배 드리자”라는 표현에서 가난한 삶의 상황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며, 궁핍한 현실 상황을 두드러지게 환기시키고 있다.

④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현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쌔 올려 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그 무렵 노동 환경이 얼마나 극악했던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처럼 이원수는 가난과 모순된 현실 문제를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아동의 목소리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광복기가 아닌 나라잃은 시기의 현실을 보여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의 동시집 가운데 광복기에 씌어진 작품은 모두 6편이다. 여기에는 「버들 피리」, 「달밤」, 「저녁」, 「가을밤」, 「첫눈」, 「병원에서」가 있다.

⑤ 푸른 달 아래 / 이슬 방울 뽀짝 뽀짝 풀잎에 달고 / 버레들은 길거히 노래 합니다. // 귀뚜라미 베짖이 고은 목소리 / 바울린 키며 키며 잘두 눕니다. // 푸른 달 밤에 / 아이들은 야윈 얼굴 노래도 않고 / 햅쌀밥을 생각 하며 잠이 듭니다. // 바누질 하는 엄마 눈에도 이슬 / “우리 애들 노래할 날 언제 오려나”

- 「가을밤」 전문

⑥ 정부없는 나라 아이들은 / 서러웁다 서러웁다 / 누가 어찌기에 / 우리 모두 헐벗고 굶주리나. // 날리는 저 눈송이 / 나비 되고 꽃이 되어 / 우리들 다 잘 살 / 독립의 날과 함께 안 오려나 / 아, 어서 그날 안오려나.

- 「첫눈」 가운데서

이원수는 광복기 아동들이 처한 삶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 동요관을 표방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아동 현실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광복기의 현실적 문제를 비판적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 인용한 두 작품은 광복을 맞았지만, 모순되고 비관적인 나라 현실 속에서 아동 스스로 정체성을 찾았으면 하는 기대 심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의 동시에 나타나는 아동상은 감상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체로서의 동심’을 지닌 아동의 모습이었다.

IV. 김원룡과 동시집 『내고향』

1. 김원룡의 매체편집과 창작활동

김원룡(1911-1982)은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는 1911년 3월 15일 마산에서 태어나, 1937년 무렵부터 동요를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1946년 2월 아동지 『새동무』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새동무사’를 경영하면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같은 해 11월 동요 『아침』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1947년 동시집 『내고향』(새동무사) 발간했으며, 전쟁기에는 피난지 대구에서 이원수가 편집주간이 되어 발행한 『소년세계』의 운영위원으로 일했다. 1954년 이후 줄곧 남향문화사를 운영하였으며, 출판문화사업에 평생을 바쳤다.²³⁾

그의 해적이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광복기의 매체편집이다. 그는 1947년 좌파 아동지인 『새동무』²⁴⁾의 편집 겸 발행인을 맡으면서 아동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았다. 그리고 『새동무』를 비롯해서 『어린이신문』·

23) 뒷날 그는 동화집 『세 잠자리』(동화출판공사, 1982)를 펴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24) 『새동무』는 1945년 12월 신문화사에서 출간된 아동지이다. 초기의 편집 겸 발행인은 임가순, 주간은 김원룡, 주요 집필진은 당시 계급주의를 부르짖던 한효, 임가순, 홍효민, 윤세중, 이동규, 최병철, 안동수 등 대부분 좌익계 작가들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새동무』는 계급주의적 경향을 내뿜은 아동지였지만, 그 내용의 밀도가 광복 직후의 좌익계 아동지 『아동문학』처럼 극한적이고 선동적인 논조를 능가하지는 않았다. 그 뒤 『새동무』는 1946년 10월 속간호인 제3호를 다시 펴냈다. 제호는 그대로 따랐고, 마산 출신의 김원룡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편집자문으로 이원수, 편집부장으로 황용남이 그 일을 거들었다. 물론 발행소(새동무사)와 인쇄소(보성사)도 바뀌었다. 이는 1947년 9월에 제10호로 폐간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필진들은 대개 좌파 계열의 문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마산 출신의 김원룡이 발행을 맡았던 만큼, 경남·부산지역 필진들과 마산 인근지역의 어린이들 중심으로 투고가 이루어졌다.

『어린이나라』·『소년』에 다수의 동요와 동화를 발표했고,²⁵⁾ 동시집 『내고향』(새동무사, 1947)을 펴내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그는 아동문학가이자 출판인으로서 광복기의 아동문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문학사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의 주요한 행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문학 차원에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가 주재한 『새동무』의 ‘우리들의 작품’란에 마산·진주·하동지역 어린이들의 작품을 싣고 있다는 점, 여러 지역에 새동무사 지사를 설치하여 아동들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²⁶⁾

1947년 9월 무렵, 김원룡은 나이 서른 여섯에 동요·동시집 『내고향』을 펴냈다. 이 동시집에는 모두 41편의 작품을 다섯 부로 나누어 실었다. 첫째 부에는 <고향생각>으로 9편, 둘째 부에는 <눈 오는 밤>으로 5편, 셋째 부에는 <어름 풀린 연못>으로 11편, 넷째 부에는 <착한 바위>로 10편, 다섯째 부에는 <야학 가는 길>로 6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권에는 인쇄일과 발행일을 따로 밝히지 않고, 다만 1947년판이라고 적혀 있다. 이원수 동시집 『종달새』보다는 몇 개월 늦게 낸 동시집이다. 그리고 저작 겸 발행인은 김원룡(서울시 돈암동 506의 3번지)으로, 발행소는 자신이 경영하던 ‘새동무사’(서울시 중구 소공동 93)로 적혀 있고, 값은 50원이었다. 판형은 12.5×18cm이고, 분량은 모두 62쪽이다.

표지 장정과 각 부의 삽화는 모두 만화가 임동은(林同恩)이 꾸몄다. 표지 그림에는 감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그 아래 남녀 어린이와 두 손을 들어 까마귀를 쫓는 시늉을 하고 있으며, 그 옆에서는 강아지가 까마귀를 향해

25) 광복기 김원룡은 『어린이신문』(1947. 12. 13)에 동요 「내고향」, 『새동무』7호(1947. 4)에 동시 「새봄맞이」, 9호(1947. 7)에 동시 「별」, 10호(1947. 9)에 동시 「시골집」을 발표했다.

26) 『새동무』 제9호에는 세 지역에 ‘새동무’ 지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마산·하동·진주지역이다. 따라서 그는 마산지사(대학서림, 마산부 원정 119), 고순하(제주지사장)와 남대우(하동지사장, 경남 하동을 하동서관)와도 친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동향의 문인 이원수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새동무』의 편집을 맡았고, 경인전쟁 뒤부터는 이원수 주간으로 발행한 『소년세계』의 편집일을 함께 하기도 했다. - 『새동무』 제9호(1947. 7) 참조.

짓고 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김원룡의 동요 『내고향』과 『시골집』의 악보를 싣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월북작곡가 정중길(鄭鍾吉)이 작곡했다.

몇몇 자료에 따르면, 그의 동시집 『내고향』은 그 발행시기가 1946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1947년 9월에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원룡씨의 동요집이 나오게 됐다는 말을 듣고 조선에도 이 방면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아 간다는 것을 느끼고 못내 기뻐하였다.

아동문화운동에 정성스런 이분의 작품은 세련되어 가정에 들어간 노래라기보담 꾸밈없는 자연적인 순박한 노래들이다. 그래 그런지 고향의 어린 옛날을 생각나게하고 그림게 하는 노래가 많다.

이 동요집 ‘내고향’을 출발로 삼아 앞으로 이 길에 더한 노력과 정진이 있을줄 믿고 기뻐하는 바이다. (1947년 9월 이 원 수)

위의 <머리말>은 동향 문인이었던 이원수가 적었다. 글 끝에 ‘1947년 9월 이원수’라고 적은 것으로 미루어, 따로 밝혀놓지 않은 『내고향』의 발행일은 1947년 9월 즈음으로 짐작된다. 이원수와 김원룡은 둘 다 1911년생으로 같은 연배였지만, 여기서 이원수는 “아동문화운동에 정성스런 이분”이라는 표현으로 그를 높게 일컬었고, 후배 문인을 대하는 관점에서 글을 적고 있다. 물론 나라 잃은 시기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원수에게는 그가 신인이나 다름없었을 터이다.

동요를 지어온지 벌써 십년이 넘었건만 한번도 자신있는 동요를 써 보지 못한 듯한 재주를 가진 내가 동요집을 낸다는 것은 한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나 우리말의 노래를 자유로 부를수 있는 해방의 감격을 어찌 할수 없어 어린이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내마음의 한토막을 엮어놓은 것이다.

‘내고향’이 둔하고 부족한 동무이기는 하나 부디 버리지말고 같이 다리고 놀아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작품 전부를 싣지못한 것을 마음아프게 여기는동시 앞으로는 아동세계를 더한층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

- 김원룡의 『지은이의 말』 전문

이 『지은이의 말』을 통해 김원룡의 작품활동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첫째, 그가 밝힌 것처럼 “동요를 지어온 지 벌써 십 년이 넘었”

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가 동시 창작을 시작한 때가 1937년 무렵부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라잃은시기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글쓴이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펴낸 아동지 『새동무』 4호(1946년 11월)에 실은 동시 「아침」이 최초의 작품으로 드러난다.

둘째, 동시집 발간 동기에 대해 적어 두었다. “우리말의 노래를 자유로 부를 수 있는 해방의 감격을 어찌 할 수 없어 어린이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내 마음의 한 토막을 엮어놓”았다는 것이다. 광복의 기쁨과 아동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사정으로 작품 전부를 실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동시 앞으로는 아동세계를 더한층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는 점에서, 『내고향』에 실린 작품 말고도 더 많은 작품이 있다는 것과 더욱 활발하게 아동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동시집 『내고향』의 작품세계

1)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작품

이원수의 표현마냥, 그의 작품은 ‘꾸밈없는 자연적인 소박한 노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고향의 어린 옛날을 생각케하고 그렇게 하는 노래가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작품들은 서정동시 계열에 속한다고 하겠다. 서정동시는 그 소재나 내용이 자연과의 교감이나 감동을 주로 표현한 동시로서, 자연 자체나 자연과의 감동적인 교류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동시를 일컫는다. 그런 측면에서 김원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

① 고향 내고향 / 박꽃 피는 내고향 / 담밑에 석류 익는 / 아름다운 내고향. // 고향 내고향 / 바다 푸른 내고향 / 석양의 노을따라 / 물새 우는 내고향. // 고향 내고향 / 어느때나 가 볼가 / 눈감아도 떠오르는 / 그리운곳 내고향.

- 「내고향」 전문

② 우리집은 시골집 / 산골속의 초가집 / 고추익어 빨갛고 / 호박덩이 노랗고 // 집뒤에는 밤송이 / 앞뜰에는 빨간감 / 고추쟁인 춤추고 / 재미있는

시골집

- 「시골집」 전문

①은 김원룡 동시집의 표제작이자 따로 곡까지 붙인 작품이다. 그에게 고향은 “박꽃 피”고 “담 밑에 석류 익는 아름다운” 곳이다. 물론 그의 고향인 마산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바다 푸”르고 “노을 따라 물새 우는” “눈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곳”이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내 고향」은 동향의 선배 시인이었던 노산 이은상의 「가고파」를 동요로 바꿔놓은 듯한 인상을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② 또한 곡을 붙여 책 뒤에 따로 실은 작품이다. 어릴 적 살던 “시골집”의 정경을 노래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서울에 살면서 자신의 고향인 마산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그의 동시 세계에는 어릴 적 살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애뜻하게 묻어 있다.

2) 아동의 삶과 일상을 노래한 생활동시

앞서도 말했듯이 생활동시는 아동들의 삶이나 생활을 통해 조명되는 동심의 시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김원룡은 아동들의 일상 생활이나 감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생활동시를 주로 썼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생활 체험에서 만나는 소재가 주로 채택되고 있다. 김원룡의 동시 세계 또한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① 엄마— / 소가 운다 / 느티나무 밑에서 / 어미 소가 운다. // 엄마 따라 들에 나온 / 어린 송아지 / 시냇가에 혼자놀다 / 어딜 갔는지, // 산기슭이 어둡도록 / 오지를 얹어 / 어미소는 일 마쳐도 / 집에 못가고, / 느티나무 밑에서 부르는 소리 / 매 매—저녁들에 / 울려가누나.

- 「어미소가 운다」 전문

② 집집마다 떡방아 쿵쿵쥼더니 / 쿵쿵소리 듣고서 새해가 왔네. // 떡국 먹고 나이 먹고 고가웃 입고 / 우리동생 설날 좋아 뛰고 춤추면. // 처마끝에 참새도 떡 쪼아 먹고 / 제 배가 부르다고 짹짹어리고. // 외양간 어미소 일 안 간다고 / 젓먹이 송아지도 좋아 땁니다.

- 「새해」 전문

①과 ②에서는 농촌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아동의 삶과 일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어미소”를 매개로 작가는 순수 동심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김원룡은 아동들의 생활 또는 일상을 직접적으로 노래하기보다 그 속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들을 통해 아동의 생활상과 비추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세계는 본디부터 그가 현실주의 아동관에 깊게 매료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²⁷⁾

3) 가난과 가족적 삶을 노래한 현실주의 경향

김원룡은 광복기 현실주의 계열의 좌파 문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현실주의 경향의 동시를 많이 창작했다. 특히 그가 발행·주간한 『새동무』는 현실주의 경향을 내세운 아동지였던 점으로 미루어, 그의 동시관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동시세계 또한 광복기 현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 겨레의 생활상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① 해방이 되었다고 어깨춤추고 / 독립이 된다해서 좋아울었더니 / 이태 삼년 지내도 독립은커녕 / 못산다는 소리만 높아 갑니다 // 왜놈이 손을 들고 쫓겨가기에 / 인제는 우리살때 왔나했더니 / 가난은 남겨놓고 몸만갔는 지 / 굶주리는 백성만 늘어갑니다

- 「언제 잘사나」 전문

② 걱정이 낙엽처럼 쌓인 우리집 / 언제나 봄바람이 불어 오려나. // 꼬 부랑 할머니는 병나서 걱정 /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해 걱정 / 언니와 오빠는 공부못해 걱정 / 나는 나는 보기가 정말 딱해 걱정. // 언제나 우리집에 웃음꽃이 피려나 / 일하면 잘사는 좋은세상 오려나.

- 「걱정」 전문

③ 왜놈들이 살던 높고 큰 집에 / 누가 들어 살기에 / 햇빛도 아니드는 곳간속에 / 사람들이 물건처럼 재여있나 // 모두가 고국이 그리워 / 찾아온 귀환동포 전제민이래 // 굴같이 길—고 어두어 / 바람도 피해 가는곳 / 여름

27) 그 무렵 김원룡이 참여했던 「대담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들에게도 현실세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만치 생활을 노래하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사회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로놓이거든요. 말하자면 과학적이 아닌 것이라도 현실과 그리 방해되지 않는 정도이면 그런 것도 상관치 않겠지요.” - 「아동문화를 말하는 좌담회」, 『아동문화』 1948년 11월호, 49쪽.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129쪽 재인용.

엔 숨막혀 죽고 / 겨울엔 얼어 죽는곳 // 다 같은 거래요 형제끼리건만 / 해
방끝에 눈물지우는 그들의신세 / 장마진 여름 밤 / 곳간속은 지옥처럼 / 고
단한 숨소리와 탄식 만이 / 가슴 아프게 흘러나온다 (1947. 8/10 마산항전
재민수용소를 보고)

- 「곳간」 전문

이 작품들에는 가난하고 불행한 광복기의 가족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①에
서 김원룡은 광복을 맞은 감격보다는 “가난은 남겨놓고 몸만 갔는지 / 굶주리
는 백성만 늘어”가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②에서는 “할머니는 병나서
걱정”,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해 걱정”, “언니와 오빠는 공부 못해 걱정”하는
가족 현실을 토로했다. 이같은 가족 구성원들의 온갖 “걱정”을 통해 힘겨운 살
림살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걱정이 낙엽처럼 쌓인 우리집”이라는 표
현이 이를 잘 대변한다고 하겠다. 한편 작가는 걱정 많은 가정에 “웃음꽃” 피는
“잘 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③은 광복으로 말미암아 “고국이 그리워 찾아온 귀환동포”들의 생활과 신세
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산항 전재민 수용소’를 보고 온 감정을 표현한 것이
다. 이른바 해방촌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옮
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햇빛도 아니드는 곳간”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목
숨을 이어가고 있다.

4) 광복 현실과 교훈·계몽적 서정

‘아동문화운동에 정성스런’ 김원룡은 광복 현실 속에서 동요의 교훈적·계몽
적 쓰임새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아동들에게 광복 현실의 과제를 작품
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이를테면 새나라 세우기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왜로의 잔재 청산과 현실의 극복의지를 부르짖고 있다. 여기에 드는 작품으로
는 「새봄맞이」, 「어린이날」, 「야학」, 「고 여운형 선생」, 「3.1운동」이 해당된다.

① 눈보라가 산넘어 가니 / 제비가 강남서 오고 / 잔디 밭이 파아래지니
/ 봄향기 마을에 퍼진다. // 산새 꽃 보고 울어 즐기면 / 뱀나비 너울너울
따라춤추고 / 초동의 피리소리 들에 울리면/ 밭갈던 농부도 흥에 잠긴다. //
조선의 아기야 모두 나와서 / 해방된 이땅의 새봄을 맞자 / 시들었던 풀잎
도 봄비 마시니 / 파아랗게 눈뜨고 하늘을 보고.

- 「새봄맞이」 전문

② 기쁨에 가슴뛰는 어린이 날은 / 새나라 새임자가 함께모여서 / 그리운
민주조선 세워보자고 /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치는 날 //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라 뺏겨도 / 어린이는 슬픈역사 빛내겠다고 / 결의(決意)를 내새우고 발을
굴리면 / 호랑이도 사자도 겁을내지요 // 가벼운 봄바람 서로 마시며 / 조선
의 어린 동무 하늘을보니 / 녹솔은 삼천리도 꽃이 핀다고 / 태극기도 펴—
펼 춤을 춥니다

- 「어린이 날」 전문

③ 무더운 밤 호롱불 밑에서 / 주먹구구로 밤새우는 아버지 / 도조 셈
에 / 어제도 지주께 속혀 왔다고 / 까막눈 신세를 슬퍼하시며 // 모깃불 타
오르는 뜰앞에서 / 신을 삼아 / 야학가는 내발에 신겨주시고 / 공부 잘 하
라고 / 신신 당부하시는 아버지 // 게고리도 개꿀개꿀 글배우는 / 초생달 비
추는 언덕길을 / 글모르면 소같은 사람 된다고 / 나무꾼 머슴들 모두 나서
서 / 재넘어 비탈길도 먼줄 모르고 / 횃파람 불며 불며 야학을 간다

- 「야학」 전문

“눈보라치는” 겨울로 표상되던 왜로군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맞이한 광복
은 아동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온 겨레의 기쁨으로 노래된다. ①에서 그는
광복을 “새봄”에 비유하면서 생동하는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사실 이데올로
기의 대립과 지독한 가난으로 암울했던 광복 직후의 삶을 상기할 때, 이 작품
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 무렵 어지
러운 나라 현실에서 벗어나 아동들로 하여금 한 순간이나마 희망을 안겨주려
는 시인의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광복의 당면 과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세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우리의 아동문단에서는 조선 아동들에게 우리말
과 글을 가르치고 희망을 안겨주려는 노력으로 충만했다. 그런 취지에서 ②는
광복과 함께 맞이한 “어린이날”에 “그리운 민주조선 세”우고 “슬픈 역사 빛내
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③은 “까막눈 신세를 슬퍼”하는 아버지가
“야학” 가는 아들에게 “공부 잘 하라고 신신 당부”하는 모습과 “나무꾼 머슴들
모두”가 야학을 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로써 김원룡은 가난한 현실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교육의 힘이 가난한 삶을 극복하는 한 방법임을 계몽하고
있다.

V. 마무리

지금껏 글쓴이는 광복기에 나온 동시집을 대상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대상에 올린 동시집은 남대우의 『우리동무』 제1집과 제2집, 이원수의 『종달새』, 김원룡의 『내고향』이었다. 이들 세 사람이 갖는 공통점은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점, 창작활동 못지않게 매체 활동을 통한 문학실천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세 아동문학가의 광복기 활동상, 그리고 그들이 낸 동요·동시집의 서지사항과 작품세계를 따져보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주류적 현상과 유의미한 맥락을 짚어보고자 했다. 논의를 줄여 마무리로 삼는다.

먼저, 광복기 남대우는 활발한 창작활동 못지않게 지역문화운동의 차원에서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동지역에 줄곧 터잡고 살면서 지역 안쪽의 아동문화활동을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끌었던 문인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광복 직후 두 권의 동시집 『우리 동무』를 펴냈다. 이들 동시집은 광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동시집 『우리 동무』는 순수동심과 자연현상을 노래한 서정동시, 광복의 감격과 교훈·계몽적 서정, 아동의 삶과 일상을 노래한 생활동시, 단체 홍보를 위한 작품들로 나뉘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원수는 좌·우파 문단의 두 진영을 넘나들며 동시·동화·소년시·소년소설·평론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가장 활동적인 동시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이원수는 광복기 내내 아동문학 영역에서 활동을 증폭·비약시켰으며 문학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한 명성에 힘입어 이원수는 동시집 『종달새』를 펴냈다. 물론 나라잃은시기에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던 것을 가려뽑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 동시집에 실린 이원수의 동시 세계는 순수동심과 자연현상을 노래한 서정동시, 아동의 삶과 일상을 노래한 생활동시, 가난과 가족적 삶을 노래한 현실주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김원룡은 아동지 『새동무』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새동무’를 경영하면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의 행적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좌파 아동지인 『새동무』의 편집 겸 발행인을 맡으면서 아동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아동문학가이자 아동지 출판인으로서 광복기의 아동문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47년 9월 무렵 김원룡은 동시집 『내고향』을 펴냈다. 이 동시집에서 그는 “우리말의 노래를 자유로 부를 수 있는 해방의 감격을 어찌 할 수 없어 어린이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내 마음의 한 토막을 엮어놓은 것”이라는 것이라 밝혔다. 그의 동시 세계는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작품, 아동의 삶과 일상을 노래한 생활동시, 가난과 가족적 삶을 노래한 현실주의 경향, 광복 현실과 교훈·계몽적 작품들로 나뉘볼 수 있다.

광복기 아동문학 또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소중한 문학 자산이다. 이 글은 광복기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 주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 주요 작가의 동시집 발굴과 실증적 성격 규명이 그 하나요, 이를 통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주류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다른 하나였다. 성글게나마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한 특성에 대한 첫발을 옮긴 셈이다.

앞으로 광복기에 나온 동화 또는 소년소설집으로 그 대상 범위를 넓히고, 이와 연계하여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피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 차원에서 아동문학의 됴됨이와 의의를 따지는 일이란 단계 높은 일거리로 남았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문학 연구의 영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아동문학, 동시집, 남대우, 이원수, 김원룡, 『우리동무』, 『종달새』, 『내고향』,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동심

참고문헌

- 계훈모 엮음, 『한국언론연표 II』,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7.
- 공재동, 「이원수 동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1987.
- 김수복, 「곤궁한 삶의 인식과 새 시대의 감격」,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 작품론』 (집문당, 1997), 83-95쪽.
-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찾기』, 청동거울, 1999.
- 김자연,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2003.
- 김중현, 「해방기 이원수 동시 연구」, 『우리말글』 제25호, 우리말글학회, 2002, 389-404쪽.
- _____, 「해방기 동시의 담론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대구대 대학원, 2004. 12.
- 김지은, 「한국 근대 현실주의 동시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경남대 대학원, 1999. 12.
-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30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1977.
-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호, 한국문학회, 2004. 8, 301-230쪽.
-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호, 한국문학회, 2004. 8, 201-241쪽.
-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천』, 학문사, 1986.
-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 _____,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를 통해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호, 한국문학회, 2004. 8, 149-200쪽.
- 박화복, 『아동문학개론』, 민문고, 1989.
- _____,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남대우의 동요세계」, 『우리동무』, 정운, 1992, 401-411쪽.
- 석용원, 『아동문학원론』, 학연사, 1982.
- 신명숙, 「어린이 잡지를 보며 자란 아이들 -1920년대에서 해방까지의 어린이 잡지」, 『초등 우리교육』, 우리교육, 2002.
- 신현득, 「한국 동시사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단국대 대학원, 2001.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 유경환, 『한국현대동시론』, 배영사, 1979.
- 유창근, 『현대아동문학론』, 동문사, 1989.
- 윤석중, 「동심을 지킨 아동문학가들」, 『동서문학』, 1988년 8월호.
- 이상현, 「아동문학과 리얼리즘 문제」, 『한국문학』 1984. 5.
- 이순옥,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제37호, 한국문학회, 2004. 8, 243-268쪽.
- 이오덕, 「아동문학과 서민성」,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비평사, 1977.
- _____, 「자랑스런 우리의 고전이 된 수많은 명편들」, 『이원수아동문학전집 1』, 웅진출판주식회사, 1984, 412-418쪽.
- 이재복, 『우리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1996.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_____, 『한국아동문학연구』, 개문사, 1983.
- _____, 『세계아동문학대사전』, 계몽사, 1989.
- 전은실, 「한국 동요의 발전사」, 동덕여자대 석사논문, 동덕여대 대학원, 2000.
- 제해만, 「한국 현대 동요·동시의 사적 고찰 -광복 이후 60년대까지」,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 최지훈, 『아동문학담론』, 청동거울, 1999.
- 한정동, 「동요에 있어서의 동심문제」, 『한국아동문학』 1집, 한국아동문학회, 1972.
- 한정호,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호, 한국문학회, 2004. 8, 269-299쪽.
- L. H. 스미스, 박화목 옮김, 『아동문학론』, 새문사, 1979.
- M. Nikolajeva, 김서정 옮김,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8.

<Abstract>

The Study on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 focus on children's verse books of Nam Dea-Woo,
Lee Won-Su, and Kim Won-Ryong

Han, Jeong-Ho

The study on the children's literature of the post-liberation period(1945-50) has been not made. Moreover the preliminary data to search and research has still not been established. Accordingly, children's literature of us are extensively followed by the text excavation, collection, character kind of time and the approach to individual children's literature. Besides in the study of children literature to specific region, The research and the reason has been many things. From that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to start.

In this paper, I am focused on character of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verse book that have made an entry subject are *Wooridongmu* No.1, No.2 of Nam Dea-Woo, *Jongdalsae* of Lee Won-Su and *Naegohyang* of Kim Won-Ryong. All of them share a great role of at the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They are no less a literary movement than creative writing. Activity post-liberation period of three writers and children's verse book issuing them are examined. Based on that, the leader and significant context of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are analysed.

First of all, Nam Dea-Woo are concerned with local literary movement.

Above all, during he lived in the Hadong, he placed himself because of leading local literature activity in practice. The same time, he published *Wooridongmu* No.1, No.2 in order to commemorate post-liberation. *Wooridongmu* parted the mind of a child, lyric poetry, living poetry and work of group publicity.

The second, Lee Won-Su crossed left or right-wing literary circles in two quarters. He worked from child poetry, fairy tale, juvenile poetry, juvenile story to criticism. In this point, he was the biggest task for the time. Also he published *Jongdalsae*. *Jongdalsae* contained the mind of a child, lyric poetry, living poetry and work of actualism.

At end, Kim Won-Ryong worked managing *Saedongmu* business as a chief editor of *Saedongmu*. Especially, among the achievements of his lifetime, Kim Won-Ryong, a chief editor of *Saedongmu*, left-wing book devoted himself about child literary movement in 1947. Also September 1947, he published *Naegohyang*. In children's verse book, he attributed delight of liberation to mind of children world. Poetry world parted folk literature, living poetry, actualism and literature of enlightenment.

Children's literature of Post-liberation Period was precious culture asset without being light. This paper are one of works to supply touchstone in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verse book excavation of leader writers and positive inquiry is one aim. The study on the main current character of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are another aim. To some extent, character of Kyungnam-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in post-liberation period has been taken first step.

Key Words :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verse book, Nam Dea-woo, Lee Won-Su, Kim Won-Ryong, *Wooridongmu*, *Jongdalsae*, *Naegohyang*, post-liberation period, Kyungnam-Pusan area, the mind of a child